

워라벨·소확행 효과... 키보드·게임기 매출 '깡충'

이마트, 스마트 모빌리티 330% ↑
피규어 등 취미·키덜트 상품 인기
아웃도어·캠핑용품 등 레저도 호황
“취미생활 관련제품 내수 소비 견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 개인의 행복과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올해 대형마트에서도 취미생활 관련 용품이 매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11월 25일까지 매장에서 판매된 850여개 상품군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취미생활과 관련된 용품이 내수 소비를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이마트의 올해 히트 상품군은 전기 자

전기와 전동 키보드, 전동휠, 전기오토바이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상품이었다.

지난해에는 상품군별 매출 순위에서 117위였는데 올해는 19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매출액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30.6% 신장했다.

게임 관련 제품도 많이 팔렸다. 게임용 키보드와 마우스, 헤드셋 등 게임 관련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26위로 22계단 뛰었고, 매출액도 117.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게임용 노트북이 118.2%, 게임용 헤드셋이 484.4%, 게임용 키보드가 101.5%, 게임용 마우스가 107.2% 등 대부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게임기와 디지털게임 콘텐츠 상품군도 매출 순위 101위에서 35위로 뛰어올랐다. 롯데마트에서도 1월부터 11월 28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키덜트'(키즈와 어덜트의 합성어/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를 위한 장난감과 게임 관련 상품이 '효자'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자체 출시한 '날아라 슈퍼보드', '건담', '드래곤볼', '원피스' 시리즈 등 인기 캐릭터 피규어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0% 이상 신장했고, 전체 피규어 콜렉션 매출도 68.8% 증가했다.

김경근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MD는 “지난 해부터 토이저러스는 7080 아빠 세 대들에게는 추억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토종 캐릭터를 중심으로 피규어를 선보이고 있다”라며, “단순한 키덜트 상품을 넘어, 국내 캐릭터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토이저러스가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독점 제안 매장으로 고객들에게 각인되는 계

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토이저러스를 '하비(Hobby/취미) 중심의 독점 제안매장'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유아동 완구 카테고리 중심에서 전략적으로 피규어, 프라모델, 게임,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규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 출시된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등 전자 게임기 관련 매출은 91.6% 신장했으며,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레저·아웃도어 관련 매출의 신장도 두드러졌다.

롯데마트 측은 “아웃도어 관련 매출은 15.9%, 캠핑용품은 24.9%, 등산의류는 600% 매출이 신장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날아라 슈퍼보드 피규어 4종 모음컷 ▶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직장인 10명 중 2명 “직무 적성에 안 맞아”

잡코리아, 직장인 299명 설문
직무 적성 맞을수록 회사 만족도 ↑

직장인 5명 중 1명은 현재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에 맞는 직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일수록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2일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299명을 대상으로 '직무와 적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8.4%는 '현재 작성에 맞지 않는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직위가 적성에 잘 맞는다'는 직장인은 26.8%였고, 그 외 54.8%는 직무와 적성 간 적합성이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적성에 맞는 직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일수록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회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무가 적성에 잘 맞는다고 답한 그룹에서 회사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4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그룹

의 회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비율이 70.9%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 절반 정도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연봉이 줄어도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면 연봉이 줄어도 이직하겠는지' 묻자 53.5%가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연봉 삭감 범위는 '100만원 미만(40.6%)', '100만원~300만원 미만(38.1%)', '300만원~500만원 미만(10.0%)' 순으로 크지 않았다.

한편 적성에 맞춰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장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묻는 질문에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답변이 14.4%로 가장 적었다. 해당 질문에 대한 1위 답변은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일을 한다(36.5%)'는 답변이 차지해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2위는 '잘 하는 일(29.4%)' 3위는 '좋아하는 일(19.7%)' 순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 반납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달 말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3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하였으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유류세 인하 한달... 휘발유값 1400원대로

(대구·인천 등 일부지역 평균 판매가)

1년 만에 평균 판매가격 1400원대
서울 은평·금천구 1500원 밑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가는 가운데 서울과 대구, 인천, 경남 등의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로 내려가고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으로 대구(1476.06원)·인천(1499.73원)·경남(1496.09원)의 보통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평균 판매가격은 해당 지역 개별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을 합한 값을 그 지역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1400원대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등장한 건 1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경남 지역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494.93원을 기록한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1400원대의 휘발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과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판매가격은 1604.42원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보통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로 떨어진



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곳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강북구(1488원)와 금천구(1478원), 은평구(1499원), 중랑구(1483원)에서 1500원 밑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광진구(1508원)도 곧 1400원대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년전과 달리 올해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정부는 1ℓ 당 82원의 가격을 내렸지만 정책 시행 첫 주에만 약 30원이 떨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내림 폭이 1.8원 정도에 그쳤다.

당시에는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급증했고 환율 또한 강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가 상쇄된 것이다.

반면 올해는 산유국들의 감산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며 “국내제품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현재의 국제유가를 참고해 다음 주 출고가를 결정, 해당 출고가가 적용된 기름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KISA, 핀테크기업 동남아 진출 지원

인니·베트남서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국내 핀테크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열었다고 2일 밝혔다.

KISA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 희망국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인도네시아, 베트남 2개국에서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지난 26일, 29일 각각 개최했다.

KISA는 공모를 통해 국내 핀테크 9개 기업을 선정해 상담회 참가 기회를 제공했다. 상담회 참가 기업들은 현지 PG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전경.

/한국인터넷진흥원

송금업, P2P대출, 자산관리 등 총 42개사 대상으로 IR피칭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그 성과로 이번 상담회에서 참가 기업

들은 총 11건의 업무협약과 1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인도네시아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권 대출 금리 예측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업데이트가 인도네시아 현지 IT솔루션 업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슈어테크 솔루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 위닝아이(생체인식), 비아이큐브(블록체인·클라우드), 페이콕(간편결제)은 현지 시장에 솔루션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기업 페이콕이 현지 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시장 내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